

공천 갈등 이어 돈다발 사건 '충격'

한나라 잇단 대형 악재로 곤혹...野 "돈 선거 부활" 공세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선거구의 김택기(57·전 의원) 후보가 등록일을 눈앞에 두고 급품 살포 등의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돼 후보직을 사퇴하고 공천권도 반납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정당 공천을 받은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낙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전체 총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거액의 돈 보따리를 주고 받은 한나라당 김택기 후보와 그의 측근 김모(41)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5시경 정선군 북평면 인근 도로에 세워둔 측근 김씨의 차량 안에서 김 후보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다발과 수표 등 4천100만원을 발견했다.

선관위는 당시 측근 김 씨가 김 후보로부터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돈뭉치를 정선군

정선을 농협 군지부 인근 도로상에서 건네받는 장면을 현장에서 포착,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뒤 5km를 뒤따라가 다량의 돈뭉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김 씨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500만원 묶음 2개, 100만원 묶음 8개 등 현금과 1천만원권 수표 및 선거구인의 명단을 압수했다.

이 같은 돈다발 사건이 터지자 야권은 즉각 "돈 선거의 부활"이라고 공세에 나서면서 총선 쟁점화를 시도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택기씨 개인의 일이라기보다는 부패정당과 차떼기 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의 '생얼굴'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방송화면을 보면 5년 전 차떼기의 현장을 그대로 보는 착각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차떼기를 반성한다고 천막당사까지 옮겨가는 쇼를 했지만 결국 허물을 벗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신은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개혁공천이란 허울을 씌워 형납공천, 철새공천, 계과공천, 밀실공천, 표적공천으로 얼룩진 한나라당의 공천결과가 결국 금권선거나 일삼는 부패공천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개혁공천과 물갈이를 했다고 하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게 밝혀졌다"며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의 오명을 이어간 것으로 부패정당의 면모를 벗지 못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김 후보의 공천권 반납을 곧바로 수용한 뒤 해당 지역구 공천자를 최동규 전 중소기업청장으로 교체하는 등 조기진화에 나섰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고 김 후보에게는 엄중 경고를 내렸다"며 "한나라당은 이미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상득-이재오 '동반출마'

거사 실패 소장과 55인 개혁 목소리 사그라져 ... 일단 휴전?

이상득 국회의원장의 불출마를 요구했던 한나라당 소장파 등 55인의 개혁 목소리는 결국 아무런 성과도 보지 못하고 사그라졌다.

이 부의장이 25일 총선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을 뿐 아니라 '동시 불출마' 카드로 거론됐던 이재오 의원의 '총선 완주'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은평구 구산동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베틀목이 되겠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또 "55명의 총선 후보자들의 총정리 요구는 당의 미래와 이명박 정부의 희망을 보여줬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자유롭고 솔직한 의견 개진을 통해 당을 더욱 활력 있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며, 저는 그들의 당과 나라를 위한 그 총정리야말로 한국 정치를 변화시킬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도 이날 '국민과 지역구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깊은 생각 끝에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면서 "모든 것은 그동안 저를 지지해 준 포항시민과 울릉군민의 심판에 따르기 했다"고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저는 경 의원직 외에 그 어떤 직책도 맡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처럼 55인의 '거사'가 실패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사를 전혀 모른 채 거사를 시도하다가 이재오 의원이 발을 빼면서 추동력을 잃은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국민에게 권력 투쟁의 모습으로 비치면서 명분을 잃은 것도 좌절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애초 19명에 불과하던 서명자는 "이재오 의원이 자신의 불출마 카드를 들고 이 대통령과 담판을 지으려 갔다"라는 얘기가 떠돌면서 서명 동참자 수가 55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이 의원이 계과 측근들과의 접촉을 끊고

잠적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고 이어 이 의원이 24일 지역구 선거운동을 재개하면서 서명파의 동력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 같이 55인의 개혁 노력이 실패하자 당내에서는 "하지 않으니만 못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거사 당사자들 대부분은 더 이상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말문을 닫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약속한 '공천 반납'에 대해서도 해명이 전혀 없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정두언 의원만이 이상득 국회의원장의 출마 강행에 대해 "이 부의장 불출마를 요구한 55인은 오직 당과 대통령을 위해 나선 만큼 '생육신'으로 불려졌으면 한다"라며 "우리의 총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총선 후에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55인의 거사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명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9 총선 표밭

조영택 "모범적 클린 선거 치르자" 제언



○조영택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갑 후보는 25일 자원봉사자들에게 클린 선거를 다짐하는 때를 붙이고 광주지역 후보들에게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클린 선거를 치르자'고 제언.

조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총선이 급품 제공·흑색 선전 등 구태정치를 청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깨끗한 선거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이용섭, 신창지구 과채류 작목반과 대화



○이용섭 통합민주당 광주 광산구를 후보는 25일 광산구 신창지구 과채류 작목반을 찾아 농민 등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

이 후보는 이날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와 이농 현상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힘을 쏟겠다"고 약속.

유정심 등 남구 의원 12명 지병문 지지 선언



○유정심 남구의회 의장과 조기주 부의장, 권용일 의원 등 남구 의원 12명은 25일 지병문 의원(광주 남구) 지지를 선언.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 의원은 통합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견제 세력으로 성장하고 남구 지역 현안에 귀를 기울이고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후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

정용화 후보자 등록... '깨끗한 선거' 약속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 서구갑 후보는 25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깨끗한 선거, 돈 안드는 선거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약속.

정 후보는 이날 "법정선거비용을 준수하고 정적 대결을 통해 정정을 펼쳐 선거 혁명을 이룩하겠다"고 피력.

박주선, 계림동 재래시장 상인과의 만남



○박주선 통합민주당 광주 동구 후보는 25일 동명동과 계림동 일대 재래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는 등 표밭갈이를 본격화.

박 후보는 이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민 경제가 살아야 한다"면서 "소규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정책 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

강운태 "정당과 인물을 보고 투표해야"



○강운태 광주 남구 후보(무소속)는 25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이날 "1인 2표제에 따라 지역구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지 정당에도 한표씩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과 인물을 보고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사교육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김경진 광주 북구갑 후보(무소속)는 25일 문흥동과 각화동 일대를 돌며 주민과 만남의 기회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

김 후보는 이날 "북구에 영어마을을 유치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

장연주, '어린이 보호 특별법' 제정 약속



○장연주 민주노동당 광주 광산구를 후보는 24일 안양 초등학교 남측 사건과 관련,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 국가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공약.

장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각 지방경찰청 내 아동 범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유괴·납치 사건의 비상경보제인 앰버알ерт(Amber Alert)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약속.

/홍행기·김지윤기자 redplane@kwangju.co.kr

민주 비례대표 후순위자 줄사퇴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 명단 후순위에 배치된 후보들이 잇따라 사퇴하고 있다.

당선 안정관에서 동떨어져 별다른 의미가 없는데다 비례대표 순번 후순위로 밀려나는데 따른 항의의 표시다. 먼저 당직자 묶음으로 추천된 서영교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 김현 부대변인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33번에 배정된 서영교 전 춘추관장은 "(비례대표 선정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다"며 "정치 전문가들이면서도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당직자들이 제대로 된 평가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후보등록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현 부대변인도 "순번(39번)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사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고사' 상태에 놓인 정동영계의 고연호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위원장도 비례대표직 사퇴를 당에 통보했다.

고씨는 "정동영계 인사로 비례대표 명단

에 들어간 사람은 나 하나 뿐"이라며 "당 지도부가 정동영계 인사들을 다 뽑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앞서 김근식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28번)는 전날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 교수는 "교수로서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4번을 배정받은 민주당 정대철 교문의 아들 호준씨도 항의의 표시로 비례대표 후보직 사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문 측은 "순화규 대표가 정 교문에게 '호준씨를 당선권에 해당하는 상위순번에 배정해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뒤집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임동욱 기자 tum@kwangju.co.kr

교사임용시험? **과내영교육학**

합격률 전국 1위

교육학, 초등교육, 유아교육

과내영고시학원

문의: 02-529-0090

공인중개사 오전반 야간반

4월 1일 첫진도 시작

수강료 50% 환급과정

현대적 학습시설, 첨단 학습보조 시스템, 과학적 평가 시스템, 창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전남이고 건너편) 236-2467~8

고객무료전화 080-0236-2468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울 361-8111, 대구 520-8111

개강 4월 1일 합격

국비무료

새총행정고시학원